D-15 무안·신안 보선현장 르포

4·25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은 무안과 신안, 목포지역에 앞다퉈 선거사무소를 개설,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무안·목포=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지역 위해 일할 사람 나오길 바랐는데…

홍업씨 출마에 "외면할 수도 없고…"

지역 대결 가능성 높아 민심 분열 우려

"아버지는 대통령이 됐고 큰 아들은 세 번씩이나 국회의원을 지냈으면 한풀이는 다 한 것 아녀. 한 술 더 떠서 개인 비리로 옥살이를 한 둘째 아들까지 선거에 나온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한 처사여."

민주당 한화갑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오는 25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무안·신안선거구. 보궐선거를 보름여 앞둔 9일 무안읍내에서 만난 택시운전자 박모(61)씨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가 후보로 출마한 대해 이같이 불만을 토로했다.

이 지역 유권자들은 30년 이상 변함없이 DJ에게 지지를 보내왔으면서도 국회의원 후보로서 홍업씨의 행보를 지켜보는 심경은 복잡한 듯 했다. "DJ는 DJ고, 아들은 아들 아니냐"에서부터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반응까지 다양했다.

무안에서 건설업을 하는 이모(58)씨는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사람이 나와 주기를 바랐는데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무턱대고 나와 당혹스럽다"며 마뜩 찮아했다. 신안군 지도읍에서 수산업을 하는 장모(47)씨도 "아버지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홍업씨가 나오지 않았어야 했고, DJ도 말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홍업씨를 전략공천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아직도 지팡이만 꽂으면 당선될 줄 아느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무안군 노인복지회관에서 만난 강모(63)씨는 "어떻게 공천을 신청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공천장을 줄 수 있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안읍번영회 관계자는 "무안에 선 기업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큰 데 그동안 투자 유치를 위해 서울에 7~8차례 갔지만 민주당 사람들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다"고 서운함을 표시했다.

다른 유력 후보들의 흠결도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당초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재현 전 무안군수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어 유권자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 차별성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같은 기류 탓인지 예비후보들은 얼굴알리기에 분주했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신안군 비금면 조모(42)씨는 "과거와 달리 선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저조한 편"이라고 밝혔으며 DJ의 고향인 하의면 양모(53)도 "주변에서 홍업씨 걱정을 많이 한다. 내놓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선거에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선거 탓에 민심이 분열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무안지역에선 이번 만큼은 자기 지역을 대변해줄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이를 의식한 듯 한 지방의원은 "선거구도가 무안-신안 간 대결로 갈 가능성이 높아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안 증도에 거주하는 김모씨(55)는 "최근 몇차례의 투표 결과에서 확인됐듯이 유권자들이 정당보다 누가 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를 눈여겨 보는 추세"라고 밝혔다.

/무안·신안=정후식기자 who@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범여권 통합 논의 중대 기로

중도통합모임 '신당창당' 내부 진통 결론 못내

민주 현역의원들, 통합모임에 교섭단체 촉구

열린우리당 탈당 그룹인 중도통합모임이 독자적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면서 범 여권의 통합 논의가 중요한 계기를 맞고 있다. 중도통합모임의 독자 신당 창당 여부에 결과에 따라 범 여권의 분열 및 통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중도통합모임의 독자신당 창당 추진과 관련, 범 여권의 분열만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경계의 모습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통합 주도권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단 중도통합신당은 9일 오전 전원회의를 갖고 통합신당 창당 추진에 대한 내부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형일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정치권 안팎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통합신당 모임은 이에 따라 오는 11일께 전원회의를 열어 신당창당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지만 내부의 입장차가 심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도 이날 의원총회 및 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박상천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정계개편과 관련, 당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에서 민주당은 정계개편과 관련,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조만간 통합신당 창당 등과 관련한 시기와 방법 등을 당내 공식기구에서 논의한 뒤 밝히기로 했다.

박상천 대표와 현역 의원들은 이날 속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면서 의견을 좁혀 나갔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현역의원들은 당장 독자적 신당 창당에 나서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통합교섭단체를 구성, 외연을 확대하자는 메시지를 중도통합모임 측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경계의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도통합모임이 신당 창당에 나서거나 민주당과 정계개편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한다면 집단 탈당 등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 민주계, 엇갈린 대선주자 선택

서청원·김무성, 박근혜 지지

YS·이병석, 이명박 손 들어줘

한나라당 대권 경쟁 과정에서 옛 민주계 인사들의 엇갈린 선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민주계라는 '단일 대오'를 이뤄왔던 상도동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의 개인적 인연 및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YS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손을 사실상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반대 진영인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기로 결정, 상도동의 '분화'를 여실히 보여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민정부 당시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내무부 차관 등을 맡은 김무성 의원은 '박 전 대표 사람'이 됐다고 공공연하게 주변에 말하고 다닌다.

민주계를 이끌어 온 YS는 지난달 13일 이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함으로써 사실상 이 전 시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YS는 지난 5일 오전 최측근인 서 전 대표가 상도동 자택으로 찾아와 박근혜 캠프행을 공식 신고하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민정부 시절 대통령 교육문화비서관과 정무비서관 등을 지낸 이병석 의원은 이 전 시장과 고향(포항)과 학교(동지상고, 고려대)가 같은 데다 후원회장까지 맡고 있는 인연으로 캠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 후보론 정권교체 어렵다"

김유찬 '이명박 리포트' 출판기념회 주장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 출신인 김유찬씨는 9일 "이명박 후보로는 정권교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의 지난 1996년 선거법 위반 당시 '살해 위협 및 위증교사' 의혹을 최근 제기했던 김씨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이명박 리포트' 출판기념회에서 "우리는 거짓 명성과 하자투성이의 막일꾼을 뽑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최고지도자 겸 대표자, 즉 품격있고 유능한 대통령을 뽑으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

그는 "물론 이 전 시장이 업무에 대한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일꾼임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으로서의 필요충분조건을 이 전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인물인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정치권 국민연금법 개정 '재시동'

한·우리 개정안 발의, 민주도 중재안 내기로

盧대통령, 유 장관 사의 여부 상황보며 결정

정치권이 이달 초 무산된 국민연금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번 주중 각자 개정안을 발의한 뒤 공조 세력을 모으는데 주력키로 했고, 민주당도 '중재안'을 내기로 하는 등 각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년여 산고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밟았다가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사의 수용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지 않고 정치권의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한나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함께 수정안을 냈던 민주노동당을, 우리당은 민주당 및 통합신당모임을 '공조 파트너'로 지목하고 세 대결을 벌일 태세여서 법안의 합의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노령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 논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민주당, 신당모임과의 조율 작업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한솥밥을 먹었던 신당모임의 태도가 걸림돌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제3기】
- 개강일시 : 4. 19(목) 09:30
- 모집기간 : 3. 20(화)~4. 19(목)
- 수업기간 : 4월~8월(4개월 15주)
- 수 강 료 : 210,000

모집인원: 1단계 오전반 20명(선착순)

수업시간
- (매주 화, 목)09:30~12:30(3강좌)

수료후 특전
-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 수료증 수여(총장명의)
-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기회부여(해당과목)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 각급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 TEL(062)950-3584, 3585, HP.011-614-416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4月 2日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야간반) •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깔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시온구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찜질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핑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깔레오 필름난방은 당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안심하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 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062)262-0101